

# 반딧불축제 막 오른다

### 내일 개막 성년 자축 입장식 등 행사 다채



“자연의 빛, 생명의 빛, 미래의 빛” 제20회 무주반딧불축제가 드디어 오는 27일 막을 올린다. 9월 4일까지 반딧불이 서식지를 비롯한 남대천과 지남공원 일원에서 개최될 예정으로 올해는 20회 성년을 맞아 환경, 체험, 소득증대로서의 진면목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개막식이 열리는 27일에는 오전 10시 30분부터 솟대세우기를 비롯한 물싸움(물총놀이), 맨손송어잡기, 설피다리공연, 중국 등봉시의 소림무술과 태권도시범을 관람할 수 있으며 저녁 6시 50분 반디길놀이를 시작으로 개막식이 시작된다.

개막식은 자연의 빛(자연환경을 의인화한 퍼레이드) 생명의 빛(무주사람들 퍼레이드) 미래의 빛(20회 축제를 축하하는 글로벌 바흐 100인 퍼레이드)을 테마로 한 입장식과 함께 20주년 기념 창작공연 ‘형설지공’, 그리고 반디길라 콘서트와 함께 진행될 예정이어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반디길라 콘서트에서는 역대 반

딧불 동요제 수상곡(별, 반딧불)과 성악(지킬 앤 하이드 뮤지컬 곡 지금 이 순간, 그리운 금강산, 축배의 노래) 공연을 관람할 수 있다.

무주반딧불축제 지원단 김상선 단장은 “정부지정 최우수축제의 면모를 보여드리고자 힘썼고 대한민국 대표 축제로 한 단계 더 올라서기 위해 심혈을 기울였다”며 “자연 속에서 자연을 배우며 행복을 만끽할 수 있는 제20회 무주반딧불축제가 가족, 친구, 동료들 함께 오시라”고 전했다.

무주읍 예체문화관 일원 무주반

딧불축제장은 꽃 터널과 수서 곤충관 등이 설치돼 자연 속에서의 여유를 만끽할 수 있으며, 이외에도 9월 4일까지 반딧불이 신비 탐사 등의 주제 프로그램과 전시, 놀이체험, 무주투어와 향교체험, 무주아리랑 음악제와 전통놀이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준비될 예정이다.

9월 4일에는 태권도의 날을 맞아 2017 무주 WTF 세계 태권도선수권대회의 성공을 기원하며 군민들의 역량을 총 결집하는 퍼포먼스가 연출될 예정이어서 큰 기대를 모으고 있다. /무주=전문선 기자

# 진안 주천면민의 장 수상자 선정

공익장 김무희 · 애향장 조귀태 · 효열장 임순희 · 산업장 김도희



공익장 김무희 애향장 조귀태 효열장 임순희 산업장 김도희

진안군 주천면은 지난 24일 면민의 장 심사위원회를 열고 수상자로 ▲ 공익장에 김무희(76), ▲ 애향장에 조귀태(57), ▲ 효열장에 임순희(69), ▲ 산업근로장에 김도희(66)씨를 각각 선정했다.

공익장 김무희씨는 농협에 근무하면서 영농교육을 실시하고 작목반을 육성하여 공동판매사업을 실시하는 등 농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한 바가 지대하여 봉사상을 받는 등 남다른 봉사정신으로 주천면 발전에 기여했다.

애향장 조귀태씨는 남다른 열정과 애향정신으로 23대 경정회장으로 활동하면서 고향발전을 위하여 헌신 봉사하였으며 주천면에 아낌없는 지원을 하는 등 면민의 화합과 활성화에 노력하였다.

효열장 임순희씨는 어려운 환경에서도 연로하신 시어머님(89)을 정성으로 봉양하고 주변 어르신들을 친절히 보살피며 마을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동네의 귀감이 되고 있다.

산업근로장 김도희씨는 새마을지도자 및 이장 활동을 하며 주민들의 손발이 되어 즉결민원 처리와 주민고충 해결을 물론 민원대행 등 주민불편에 관심과 애정으로 헌신 봉사하고, 농가의 생산물 유통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소득증대에 기여하였다.

한편 제6회 주천면민의 날 행사는 오는 9월 3일 토요일 주천생태공원에서 면민, 초청인사, 출향인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면민의 장 수여와 기념식, 체육행사, 어울마당 등으로 진행하게 된다. /진안=우태만 기자

# 장수 합미산성 2차 발굴조사 현장설명회 와당 등 특징적 유물 확인

장수군(군수 최용득)과 군산대학교 박물관(관장 박장근)은 지난 24일 장수합미산성에서 학술용역 중인 장수합미산성 2차 발굴조사 현장설명회를 가졌다.

이날 발굴조사에서 추가로 확인된 방형집수시설은 5m내외이며, 원형집수시설이 조성된 이후 개축된 것으로 방형집수시설의 경우 광양마로산성(사적492호), 정음고사부리성(사적494호), 익산미륵산성(전북기념물 12호) 등에서 확인된 집수시설과 축조시기 및 축조기법이 유사한 구조로 확인됐다.

출토유물이 삼국시대에서부터 나말여초시기 유물로서 전형적 통일신라 유물이나 고려시대 유물은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삼국시대 축조되어 사용되다가 공백기를 거쳐 나말여초시대 대규모 개축을 통해 사용되다 고려이전 폐쇄된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집수시설내부에서 토기(삼국시대~나말여초, 토제품), 초기청자, 기와(인장파, 와당 등), 가공목제품 등이 확인됐다.

이중 와당은 중앙에 원문이 있고 그 안에 작은 연화문이 있는 것과 없는



것으로 분류되는데 현재까지 확인된 예가 없는 매우 특징적 유물이라고 밝혔다.

강원대(정주문화유산연구원), 최인선(순천대학교박물관장) 교수는 성벽 잔존상태가 좋고 집수시설에서 상당한 조사 성과를 보이는 만큼 성급한 조사보다는 체계적 조사를 통해 산성의 성격을 철저히 분석하고 규명하길 당부했다.

최성락 교수(목포대학교, 문화재청 사적분과위원장)는 “산성의 보존이

매우 중요한 요소이므로 보수정비보다는 학술조사에 매진해 성벽, 문지, 건물지등의 추가조사를 통해 사적이 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길 바란다”며 견해를 밝혔다.

육영수 소장은 “그동안의 설움을 토해내듯 장수의 역사문화가 확인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향후 행정적 뒷받침을 통해 장수군과 나아가 전북도를 대표하는 문화유산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장수=고판호 기자



# 진안군 사회복지대학 졸업식

진안군 제1기 사회복지대학 졸업식이 25일 군민자치센터에서 진행되었다.

진안군사회복지협의회(회장 송상모)에서 진행한 사회복지대학은 지난 4월 7일 첫 수업을 시작으로 8월 25일 졸업식까지 20주간 진행되었다.

사회복지대학은 사회복지에 대한 이해와 참여를 통한 자발적 사회복지 활동 참여를 목적으로 진행되었으며, 복지와 경제, 복지현장 실천사례, 건강과 노후복지, 사회복지 현장체험 등 다양한 수업으로 진행 되었다.

졸업식에서 김영례씨 등 4명이 개근상, 김덕용씨 등 3명이 정근상을 받았으며, 학사일정 동안 헌신 봉사한 채권자 학생대표가 학장상, 최고령자인 김춘자 학생이 진안군사회복지협의회장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사회복지대학장인 김진 교수는 “지난 20주 동안 생업과 교육을 병행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으며, 복지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항로 교수는 “사회복지에 대한 이해를 가지시고 각자의 자리로 돌아가셔서 어려운 이웃을 돌아봐 주시는 계기가 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 완주군, 가뭄피해 예방 만전

완주군이 가뭄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대책 마련에 나섰다.

25일 완주군에 따르면 최근 기록적인 폭염(8월 25일 기준 37일간 지속)이 지속되고, 8월 누적 강우량이 41.8mm로 평년(234.8mm) 대비 17%로 저조한 상태다.

또한 완주군 저수지 저수율이 43.4%로 급격하게 떨어지는데다, 발작물을 중심으로 극심한 가뭄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완주군에서는 가뭄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가뭄대비 대책을 마련하고 본격 시행에 나섰다.

우선 농업용수 절약방법을 각 읍·면들 통해 농민에게 교육토록 조치했다. 특히 발작물 용수 공급을 위한 관정개발 사업비 3억원(군비)을 확보해 가뭄이 극심한 지역을 중심으로 우선 지원할 방침이다.

군은 시급한 관정개발을 위해 지하수 개발신고 등 인·허가 지원에 필요한 행정지원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나아가 관정개발사업자 협의해 신속하게 개발될 수 있도록 협조 요청하고, 개발된 관정에 대해서는 신속한 전기 인입을 위해 한국전력공사와의 협의를 계획이다. /완주=이종복 기자

# 와이드푸드축제 '리틀 와푸족 체험단' 운영

완주군은 다음달 23일부터 25일까지 고산 자연휴양림 일원에서 개최되는 제6회 완주 와이드푸드축제에서 '리틀 와푸족 체험단'을 운영한다.

'리틀 와푸족'은 유치원~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어린이들이 원시인 복장을 착용하고 지정된 체험 노선을 2개의 부족으로 나누어 미션수행 및 돌도끼만들기, 족대체험, 물총싸움, 메뚜기잡기 등 다양한 체험을 진행하는 프로그램이다.

'리틀 와푸족'은 매회 축제 때마다

일주일 안에 사전접수가 마감되는 등 인기가 높다. 참여인원은 1회 30명으로 사전접수 20명, 현장접수 10명으로 신청이 가능하고 3일간 총 5회 운영한다.

사전신청은 8월 25일부터 접수가 가능하며 신청방법은 완주 와이드푸드 축제 홈페이지(www.wildfoodfestival.kr)를 방문해 접수할 수 있다.

기타 문의사항은 완주군청 상하수도 사업소(063-290-3373)로 하면 된다. /완주=이종복 기자

# 최용득 장수군수, 과수 농가 방문 격려

최용득 장수군수는 추석사과 홀로 출하를 앞두고 지난 24일 관내 과수 농가를 방문해 농인들을 위로 격려했다.

이날 최 군수는 연일 계속되는 폭염에도 불구하고 햇빛 데임 사과 방지와 착색관리에 구슬땀을 흘리고 있는 농가를 찾아 “올해도 최고의 명품사과를 생산할 수 있도록 품질관리에

최선을 다해달라”며 “폭염에 건강유 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수군은 폭염과 가뭄에 대비해 사과 잎따기, 반사필름 깔기 등 착색관리와 물발해충 방제지도 등 일제출장을 통한 영농지도를 지속적으로 실시, 과수사과 피해 최소화하고 고품질의 안전한 사과생산에 대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장수=고판호 기자

# 무진장소방서, 장수읍 이장단회의서 소방안전교육

무진장소방서(서장 조용주)는 25일 장수읍 이장단회의에서 일반주택 기초소방시설 조기 설치 설명회 및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최근 2년간 전라북도 내에서는 총 2,323건의 화재가 발생, 이중 주택화재는 624건으로 전체 화재의 약 27%가 주택에서 발생하고 있다.

이와 같이 빈번히 발생하는 주택화재 예방을 위해서는 화재발생을 초기에 인지하여 진압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장수군의 주택현황(2014년기준)은 총 9,701개로 이중 단독주택은 8,251개(85.1%), 다가구주택 357개(3.6%), 아파트 등 공동주택 1,033개(11.3%)으로 단독주택 거주자가 압도적으로 많다. /장수=고판호 기자

농촌 지역의 경우 단독주택이 많고, 고령의 노인 거주 비중이 높으며 또한 소방서와 원거리에 있어 화재 발생 시 소방차가 골든타임 내 도착하기에 어려움이 있어, 화재 시 연기를 감지하여 화재 발생을 알려주는 단독경보형감지기과 화재 초기 소방차의 역할을 하는 소화기 설치가 필요하다.

이번 설명회는 마을 이장단을 대상으로 하여 기초소방시설의 설치 독려 홍보와 함께 화재 발생시 119신고요령 및 소화기 사용법,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 및 점검방법 등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교육으로 진행됐다. /장수=고판호 기자

# 무주군 체육회 창립 이사회 개최

2016 무주군 체육회 창립 이사회가 25일 무주읍 최북미술포 2층 세미나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회의는 각종 규정 제정 동의의 건과 사무국장 임명, 운영위원 임명 등을 위해 진행된 것으로, 황정수 회장(무주군수)을 비롯한 이사진과 감사 등 30여 명이 참석해 무주군체육회 통합 경과와 규약제정에 관한 내용들을 공유했다.

황정수 회장은 “전문체육과 생활체육이 하나되어 첫걸음을 내딛는 역사적인 순간”이라며 “오늘을 계기로 체육단체 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시키고 군민들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을 높이는 역사가 시작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무주군체육회는 2015년 3월 국민체육진흥법이 개정 · 공포돼 국민생활체육회와 대한체육회가 통합됨에 따라 무주군 관련 전문체육과 생활체육 단체를 통합한 것으로, 황정수 회장을 비롯한 임원과 감사, 그리고 26명의 대의원들로 구성이 됐으며 앞으로 무주군 체육발전과 생활체육교실 운영, 각종 대회 개최 지원 등의 업무를 추진하게 된다. /무주=전문선 기자

# 완주산단 한여름밤 문화콘서트

완주산단단지가 지역주민과 근로자를 위한 제3회 한여름밤 문화콘서트를 개최한다.

이번 문화콘서트는 오는 29일 월요일 저녁 7시 30분부터 완주출신 연예예술인 총협회 완주지회 빅밴드와 둔산지역 청소년 댄스동아리, 완주종합복지관 수강생들이 그동안 배우고 익힌 갖가지 수준급의 연주와 노래 등을 지역주민과 근로자들에게 선보일 예정이다.

약 2시간동안 진행되는 이번 콘서트에서는 여름밤의 별빛과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는 둔산공원 야외공연장에서 감미로운 선율에 맞춰 역동적인 춤과 노래가 펼쳐질 예정이다.

완주군은 올해 3회째를 맞이하는 문화콘서트에 많은 주민들이 참여해 콘서트를 즐길 수 있도록 둔산공원 내 야외무대 관람석을 50석에서 300석으로 확장했으며, 공연과 야간 밤 풍경이 함께 잘 어울릴 수 있도록 공원 내 경관조명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밝혔다. /완주=이종복 기자

# 진안군, 체납액 징수기간 운영

진안군은 세외수입과 지방세 체납차량에 대해 9월 한 달간 체납액 집중 징수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주요 징수대상은 자동차 책임보험, 검사료, 정정차질서 위반 등으로 인해 부과된 세외수입 체납액이 30만원을 초과하는 체납차량과,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한 차량으로 반호관 영치활동을 집중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군은 지난 4월 도입한 차량영치 영상인식 시스템을 통해 아파트 등 주거 밀집지역과 공공주차장, 주택가 등 관내 전 지역을 순회하며 체납차량을 추적하여 반호관을 영치할 계획이다.

또한 소액 체납차량의 경우 영치예고증 출력력을 통한 자진납부를 독려 등 체납액 징수활동을 펼친다. 이에 앞서 8월말까지는 체납차량에 대한 영치예고증을 부착하여 체납자들의 경각심을 일깨워줄 계획이다. /진안=우태만 기자

# 장수췌, 학교폭력예방교육 실시

장수경찰서(서장 윤종섭)는 지난 24일, 2학기를 맞아 학생들의 안전한 행복한 학교생활을 위해 장계중학교 1,2학년(100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학교폭력예방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에서 학교전담경찰관은 최근 청소년들 사이에 많이 발생하는 사이버 명예훼손, 모욕, 따돌림 등 학교폭력사태가 담긴 PPT자료 및 동영상 등을 시청함으로써, 형식적이고 일원화된 주입식 교육을 벗어나 학생들과 의견을 나누고 소통하며 범죄에 대한 심각성에 대해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윤종섭 서장은 “학기 초 학교폭력예방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 학교폭력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장수=고판호 기자